

# 나주시, 설맞이 로컬푸드 선물 특판전

### 오는 11일까지 빛가람·금남 직매장에서 지역 농산물·가공식품 등 선물세트 30여종 소비자 쿠폰·사은품 지급 등 이벤트 다채

나주시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설맞이 로컬푸드 선물세트 특판전'을 연다.

1월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판전은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과 금남점에서 연휴 첫 날인 오는 2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대표 특산품인 나주 배를 비롯해 한라봉, 딸기, 더덕, 새싹인삼 등 산지 농산물과 흑마늘진액, 한과, 재래김세트 등 가공식품을 포함해 30여종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특판전 기간 직매장에서 농·축산물, 가공품(수산물, 공산품 제외)을 구입

한 전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는 소비자 쿠폰이 지급된다.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는 과일선물세트 구매 시 사은품으로 방역마스크(KF94) 3매를 증정한다.

특판전 외에 출하 농가 및 업체별로 7~20%의 개별 할인을 진행하며 최근 새롭게 입점한 반찬코너(이화찬)에서도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마련했다.

직매장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는 나주시 공식 쇼핑몰 '오색마을'(www.fivecolor.kr)에서 온라인으로 주문 가



능하다.

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소한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연휴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배하기, 윷놀이 등 온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를 담은 사진 또는 동영상은 나주로컬푸드 밴드(band)에 게시하면 회원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특판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 업체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특판전 관련 문의는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333-9081), 금남점(☎333-9071)으로 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지역 농업 선도 청년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 맞춤형 사업...5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위해 8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은 차세대 소득 창출형 청년농업인 성공모델을 창출이 목표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4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3개소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영농 기반시설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시설로 개선하거나 가공, 유통 시설을 지원해 소득 기반 구축을 한다.

39세 이하 청년 4-H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사업(4개소, 1억2000만 원)을 통해 4-H회원에 농자재와 시설을 지원한다. 창업 활동을 위한 신기술 도입, 브랜드 개발을 돕는다.

가족 중심인 영농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영농 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1개소, 3000만 원)도 추진한다. 부모 세대 영농 기반시설을 첨단 정

보통신 시설로 개선하거나 6차 산업과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 창업농 5명을 선발해 농가별 경영진단·분석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청년4-H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영농 생활 법률과 영농 승계 관련 세무, 마케팅 전략 등을 10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라남도 청년4-H 과제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4-H회원들을 모집해 2월 중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시범사업은 오는 2월 5일까지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과 교육에 관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061-379-545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탄탄한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구례군, 노후정수장 스마트 개량 추진

구례군은 오래된 구례·마산 정수장의 전면개량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2020년까지 마치고 올해 공사를 착수한다.

구례정수장은 78년부터 운영하여 구례읍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고 마산정수장은 84년부터 운영하여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을 급수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준공한지 40여년이 지난 시설로 전면개량을 시행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구례정수장 3,000톤/일, 마산정수장 2,600톤/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 용량을 5,600톤/일에서 7,900톤/일로 증설함과 동시에 기존 정수장을 폐쇄하고 섬진강변 구례취수장 인근으로 위치를 이전하여 통합 증설한다는 것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곡성군, 목재펠릿 난방시설 최대 280만 원 지원

### 곡성군, 목재펠릿 난방시설 최대 280만 원 지원

곡성군이 군민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목재펠릿보일러와 난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이 올해 총 4대의 목재펠릿 난방시설(보일러 또는 난로)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펠릿 보일러의 경우 1대당 금액은 400만원인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금액의 70%인 280만원(자부담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펠릿난로는 1대당 150만원으로 최대 70%까지 지원받으면 105만원(자부담 4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단 사

회복지사시설은 기준액 이내(펠릿 보일러 280만원, 펠릿 난로 105만원)로 구입할 경우 자부담 없이 가능하다.

펠릿은 벌채나 고사목 등과 같이 산림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약 20mm 길이로 가공해 만든 친환경 연료다.

최근 화목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펠릿이 친환경 녹색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자료에 따르면 펠릿은 황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의

1/22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의 1/13 수준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환경오염 방지와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 화목 난방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등을 위해 매년 펠릿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절감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 장성 서삼사랑택시, 운영 확대

### 노선 왕복운행으로 변경...임산부·영유아가정도 이용

장성군 서삼면에서 운영 중인 '서삼사랑택시'의 노선과 이용 대상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장성군에 따르면 기존에 편도로만 운영되던 노선이 금년부터는 왕복운행으로 변경된다.

이용 대상도 지역 내 고령 주민 뿐만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가정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삼사랑택시를 운영하는 서삼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무상)는 서삼택시와 협약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장성군 '서삼사랑택시'는 지난 해부터 교통편이 필요한 주민들이 무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서삼면이장협의회와 서삼면청년회, 서삼 출신 공직자 등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운영 기금 기부 등 활동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서삼사랑택시 활동에 참여 중인 모범택시기사 김동연 씨는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군 창평면, 전남도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 '장려상'

담양군 창평면이 전남도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창평면은 전국 최초 슬로시티 마을로, 군 전역으로 슬로시티가 확대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전국 제일의 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깨끗한 가로 환경 만들기 ▲깨끗한 들녘 환경 만들기 ▲우리 마을 공공시설은 우리가 관리 ▲농장(하우스, 축사)주변 정결 관리 ▲우리 동네 전통자원 보존·관리 ▲너와나 함께하는 미덕(美德)가지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실천 ▲행복하게 살아가는 창평 ▲배려와 긍정의 상징 창평 칭찬 등 창평면만의 10대 정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진 창평면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통한 '전국 최고의 으뜸마을' 창평면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